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 이민제도의 개요와 실태

사카이 스미오(坂井澄雄)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국제연구부장)

■ 머리말

경제사회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입국관리 제도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개방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수용은 반드시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 수용정책, 제도의 개요와 실태를 소개함과 동시에 수용 촉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촉진정책

일본 정부는 2007년 고용대책법 개정에 즈음하여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촉진시책을 내놓았다. 이 시책의 목적은 내각관방장관 하에 노사정확으로 구성된 '고도인재수용추진회의'에 따르면 "다양한 가치관, 경험, 노하우, 기술을 지닌 외국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의식과 노무관리방식을 글로벌

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예비군인 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해 인턴십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포인트제를 활용한 우대 제도 도입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매력적인 고용·노동환경과 사회·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정부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해서는 포인트제를 활용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혁신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일본이 전략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전문인력, 예를 들면 ① 연구자, 과학자, 대학교수 등 ‘학술연구 분야’의 인력, ② 의사와 변호사, 정보통신 분야 등의 기술자 등 고숙련의 자격, 전문지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도전문·기술 분야’의 인력, ③ 기업의 경영자와 고위간부 등 ‘경영·관리 분야’의 인력을 대상으로 ‘학력’, ‘자격’, ‘직장경력’, ‘연구 실적’ 등 분야 특성에 따라 설정한 소정의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가 일정 점수에 도달한 자에 대해 원활한 일본 입국과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다양한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한다.

경제사회 상황 변화에 따른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 수용의 추진

일본의 경제사회 상황 변화에 따라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인재를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니즈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해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행의 체류자격과 입국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전문적·기술적 분야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노동시장과 산업,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체류자격과 입국허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수용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인재활용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 사원들의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외국인 사원들의 취업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체류자격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을 재검토하고 체류자격상의 조치를 검토한다. 또한 정보처리 기술자와 관련하여 외국과의 상호 인증을 통한 수용촉진조치를 향후에도 계속함과 동시에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의 소지, 자격의 상호 인증을 통해 그 전문성, 기술성이 담보되는

경우 실무경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

- 외국인 고용서비스센터(도쿄, 아이치,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 취업을 촉진한다.
- 대졸부문과 대학 등의 각 부문과 연계하여 유학생의 국내 취직을 촉진한다. 또한 유학생에 대한 인턴십 사업을 실시한다.
-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추진한다.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2010년에는 도쿄, 후쿠오카, 나고야에서 개최).

■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 제도의 개요

일본에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다음 4가지 형태로 취업이 가능하다.

첫 번째 형태인 ‘취업 목적의 체류가 인정되는 자’ (이른바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범위는 ‘산업 및 국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 직종별로 결정되나, 크게 ‘고속련 전문직’ ‘대졸 화이트칼라, 기술자’ ‘외국인 특유의 또는 독특한 능력 등을 활용한 직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카테고리의 체류자격이 인정된 자는 각 체류자격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취업)이 가능하다. 이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에 의해 취업하는 외국인이 넓은 의미의 ‘외국인 전문인력’이며, 전항에서 서술한 일본 정부가 현재 적극적으로 취업촉진을 꾀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외국인 전문인력은 이 중 ‘대졸 화이트칼라, 기술자’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해당하는 주요 체류자격은 <표 1>과 같다.

두 번째 형태는 ‘신분에 의거하여 체류하는 자’로 여기에는 ‘정주자(주로 닛케이진(재외 일본인) [S1])’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체류자격은 체류 중의 활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이 가능하다.

〈표 1〉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해당하는 주요 체류자격

체류자격		구체적 예	체류기간
기술	①	기계공학 등의 기술자, 엔지니어 등	3년 또는 1년
인문지식	①	기획, 영업, 경리 등의 사무직	3년 또는 1년
국제업무	②	영어회화학교의 어학교사, 통역·번역, 디자이너	3년 또는 1년
기업 내 전근	①	외국 사업소로부터의 전근자	3년 또는 1년
기능	②	외국요리사, 외국건축가, 파일럿, 스포츠 지도자	1년, 6개월, 3개월 또는 15일
교수	③	대학교수	3년 또는 1년
투자·경영	③	외국계 기업의 경영자·관리자	3년 또는 1년
법률·회계업무	③	변호사, 회계사	3년 또는 1년
의료	③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제사, 진료방사선 기사	3년 또는 1년
연구	③	정부관계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	3년 또는 1년
교육	③	고등학교, 중학교 등의 어학교사	3년 또는 1년

주: 1) 체류자격 번호는 ①은 '대졸 화이트칼라, 기술자', ②는 '외국인 특유의 또는 특수한 능력 등을 활용한 직업', ③은 '고숙련 전문직'을 나타냄.

2) '인문지식·국제업무'는 체류자격으로는 하나의 카테고리이나, 편의상 2가지로 나누어 표시.

자료: 후생노동성 '일본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카테고리'에 의거하여 필자가 작성.

세 번째 형태는 '특정 활동 등'으로 여기에는 기능 실습, EPA(경제연계협정)에 의거한 외국인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외교관 등에 고용된 가사사용인, 워킹홀리데이 등이 포함된다.

네 번째 형태는 '자격외 활동'(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등)으로 본래의 체류자격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1주일 28시간 이내)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수를 받는 활동이 허가된다.

■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실태

2009년 말 현재 외국인 등록자는 218만 6,121명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2009년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외교’ ‘공용’ 제외)에 의한 신규 입국자 수는 5만 7,093명으로, 2008년에 비해 1만 5,056명(20.9%) 줄어들었다. 2009년 전체 신규 입국자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체류자격에 의한 신규 입국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0.9%이다.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사원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2009년도 신규 입국자 수는 ‘기술’ 3,363명, ‘인문지식·국제업무’ 4,167명, ‘기업 내 전근’ 5,245명으로 총 1만 2,775명이다. 2008년에 비해 ‘기술’은 5,849명(63.5%) 감소하였고,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업 내 전근’은 각각 1,523명(26.8%), 2,062명(28.2%) 감소하여 체류자격 합계는 총 9,434명(42.5%) 줄어들었다.

한편,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09년 12월 말 현재 ‘기술’ 5만 493명, ‘인문지식·국제업무’ 6만 9,395명, ‘기업 내 전근’ 1만 6,786명 등 총 13만 6,674명으로, 2008년에 비해 688명(0.5%) 감소하였으나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취업이 목적인 외국인의 일본 체류 장기화 및 정착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등록자 수의 추이는 <표 2>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 체류자격별 외국인 등록자 수의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09	
						구성비	전년대비
기술	29,044	35,135	44,684	52,273	50,493	2.3	-3.4
인문지식·국제업무	55,276	57,323	61,763	67,291	69,395	3.2	3.1
기업 내 전근	11,977	14,014	16,111	17,798	16,786	0.8	-5.7
기능	15,112	17,869	21,261	25,863	29,030	1.3	12.2
교수	8,406	8,525	8,436	8,333	8,295	0.4	-0.5
투자·경영	6,743	7,342	7,916	8,895	9,840	0.5	10.6
법률·회계업무	126	141	145	154	161	0.0	4.5
의료	146	138	174	199	220	0.0	10.6
연구	2,494	2,332	2,276	2,285	2,372	0.1	3.8
교육	9,449	9,511	9,832	10,070	10,129	0.5	0.6
기 타	1,872,782	1,932,589	1,980,375	2,024,265	1,989,400	91.0	-1.7
전 체	2,011,555	2,084,919	2,152,973	2,217,426	2,186,121	100.0	-1.4

자료: 법무성 입국관리국편(2010), ‘출입국관리’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

‘기술’ 체류자격에 의한 신규 입국자 수를 국적(출신지)별로 살펴보면 중국 1,404명(41.7%), 한국 439명(13.1%), 인도 296명(8.8%), 베트남 273명(8.1%) 순이다. 이들 4개국이 ‘기술’ 체류자격에 의한 전체 신규 입국자의 71.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에 의한 신규 입국자 수를 살펴보면, 미국 945명(22.7%), 한국 570명(13.7%), 중국 553명(13.3%), 영국 347명(8.3%) 순이다. 이들 4개 국가가 ‘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에 의한 전체 신규 입국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자가 실제로 취업한 직종을 살펴보면 여전히 어학과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다.

‘기업 내 전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신규 입국자 수를 살펴보면, 중국 1,858명(35.4%), 한국 592명(11.3%), 인도 433명(8.3%), 필리핀 397명(7.7%) 순이다. 이들 4개 국가가 ‘기업 내 전근’ 체류자격에 의한 전체 신규 입국자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표 3〉 국적(출신지)별 체류자격별 외국인 등록자 수

(단위 : 명, %)

	기 술	인문지식·국제업무	전 체	구 성 비
전 체	50,493	69,395	119,888	100.0
아시아	46,757	50,333	97,090	81.0
중국	27,166	34,210	61,376	51.2
인도	3,925	829	4,754	4.0
한국·북한	8,015	8,962	16,977	14.2
필리핀	2,118	951	3,069	2.6
베트남	2,188	497	2,685	2.2
유럽	1,960	6,689	8,649	7.2
프랑스	621	1,026	1,647	1.4
영국	415	3,176	3,591	3.0
아프리카	152	309	461	0.4
북미	1,145	9,154	10,299	8.6
미국	833	6,710	7,543	6.3
남미	123	183	306	0.3
오세아니아	353	2,712	3,065	2.6

자료 : 법무성 입국관리국편(2010), ‘출입국관리’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외국인 사원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09년 말 현재 ‘기술’ 5만 493명, ‘인문지식·국제업무’ 6만 9,395명, ‘기업 내 전근’ 1만 6,786명이다. 2008년 말과 비교하면 ‘기술’ 1,780명(3.4%) 감소, ‘인문지식·국제업무’ 2,104명(3.1%) 증가, ‘기업 내 전근’ 1,012명(5.7%)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국적(출신지)별로 본 체류자격별 외국인 등록자 수는 <표 3>과 같다.

2009년 말 현재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의 외국인 등록자 총수에서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의 외국인 등록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술’ 23.7%, ‘인문지식·국제업무’ 32.6%, ‘기업 내 전근’ 7.9%로, 일반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사원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외국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의 특징

후생노동성이 2009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¹⁾에 따르면, 일본의 고도의 외국인재 채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비교하면 제조업에서 더 외국인 전문인력의 채용이 개선되고 있다.
- 매출 규모별로 비교하면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외국인 전문인력의 채용이 더 활발하다.
- 직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연구개발 전문직, 비제조업에서는 IT 관련 전문직이 많다.
- 매출액이 5,000억 엔 이상인 기업에서 연구개발 전문직 고용인 수가 많다.
- 전체적으로는 ‘국제업무 전문직’을 중시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
- 제조업에서는 기술계(IT관련 이외), 연구개발 전문직을 중시하고 있으나, 비제조업에서는 국제업무 전문직, 종합직을 중시하고 있어 업종 간에 차이가 있다.

1) 후생노동성이 2009년에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촉진사업’(주식회사 후지츠종합연구소에 위탁)을 통해 상장기업 등 3,9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상황

전항에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의 일본 기업 취직경로로서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대학, 대학원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본항에서는 유학생의 일본 기업 취직상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유학생 수는 정부의 촉진정책의 효과도 있어 <표 4>와 같이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유학생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02년 말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하여 2009년 말 현재 유학생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08년 말보다 7,395명(5.3%) 증가하여 14만 5,909명에 달하고 있다. 이를 국적(출신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9만 4,355명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한국·북한이 1만 9,807명(13.6%)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총 합계는 2005년 말에 비해 약 1.1배 증가했다(표 4 참조).

<표 4> 외국인 유학·취학생의 상황

(단위 :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09년도 유학자격 입국자 수	23,384	26,637	28,799	34,005	37,871
2009년도 취학자격 입국자 수	18,090	19,135	19,160	24,111	28,278
2009년 말 유학자격 등록자 수	129,568	131,789	132,460	138,514	145,909
2009년 말 취학자격 등록자 수	28,147	36,721	38,130	41,313	46,759

주 : '유학'이란 대학, 대학원의 학생, '취학'이란 그 외의 학교의 학생을 의미함. '취학'의 대다수는 '일본어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음.

자료 : 법무성 입국관리국 Web '통계자료'.

소폭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희망자

일본에서는 유학생이 일본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유학'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즉 체류자격 변경 상황을 보면 취직을 희망하고 있는 유학생의 규모를 알 수 있다.

2009년의 체류자격 변경 상황을 보면 9,584명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았다. 2008년 허가 수

11,040명에 비해 1,456명(13.2%)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표 5>와 같이 중기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의 허가 상황을 국적·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이 전체의 6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총 합계는 전체의 96.3%에 해당하는 9,22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① 중국 6,333명(전년대비 1,318명, 17.2% 감소)
- ② 한국 1,368명(전년대비 8명, 0.6 % 증가)
- ③ 중국(대만) 285명(전년대비 18명, 5.9 % 감소)
- ④ 네팔 173명(전년대비 12명, 7.5% 증가)
- ⑤ 베트남 161명(전년대비 28명, 14.8% 감소)

체류자격별로 보면 ‘인문지식·국제업무’가 6,677명(69.7%), ‘기술’이 2,154명(22.5%)으로 이 두 가지 체류자격(좁은 의미의 외국인 전문인력)이 전체의 92.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이 7,096명(74.0%), 제조업이 2,488명(26.0%)이다. 비제조업의 경우 상업·무역 2,248명(23.5%), 컴퓨터 관련 1,252명(13.1%), 교육 705명(7.4%)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기계 427명(4.5%), 전기 419명(4.4%)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는 50명 미만이 4,058명(42.3%)으로 가장 많고, 이를 포함하여 300명 미만의 기업에 취직한 사람이 5,893명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직무 내용은 번역·통역이 2,731명(28.5%)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판매·영업(1,631명), 정보처리(1,010명), 해외업무(576명) 순이다. 이 4가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948명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하고 있다. 월급여는 ‘20만 엔 이상 25만 엔 미만(한화 약 224만 원 이상 280만 원 이하)’이 4,945명(51.6%)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만 엔 미만(한화 약 224만 원 이하)’ 2,697명(28.1%),

<표 5> 유학생의 취업 목적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건수

	2005	2006	2007	2008	2009
허가건수	5,878	8,272	10,262	11,040	95,848

자료: 법무성 입국관리국 Web ‘통계자료’.

‘25만 엔 이상 30만 엔 미만(한화 약 280만 원 이상 335만 원 이하)’ 1,116명(11.6%) 순이다. 최종 학력은 대졸이 4,396명(45.9%), 대학원 수료(석사·박사 과정의 합계)가 2,814명(29.4%)이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목적으로는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기 위해 서라고 한다. 한편 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수료하는 교육과정의 높아질수록 출신국(지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으나, 재학 중인 유학생의 약 60%가 일본에서의 취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무역업무나 해외업무를 희망하고 있어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여 출신국(지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유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학생이 일본에서 맡는 직무는 번역과 통역이 가장 많아, 많은 유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향후의 과제

현재 일본에는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19만 8,000명,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 후보자’인 유학생이 13만 3,000명 체류하고 있다. 유학생 중 60% 이상이 졸업 후 일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한편,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2008년 현재 1만 1,000명에 그치는 등, 일본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의 채용, 활용, 유지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

후생노동성이 2009년 상장기업 3,9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채용, 활용, 유지의 저해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① 채용 : 능력을 판정하기 어렵다(45.8%), 원하는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적다(29.5%)
- ② 활용 : 채용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서가 한정되어 있다(41.1%), 언어·커뮤니케이션상에 장벽이 있다(36.6%)
- ③ 유지 : 비자 연장 등 법제도상의 제약이 많다(25.1%),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부족하다(24.1%)

이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회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 외국인 전문인력에 기대하는 역할의 명확화
- 직종에 따라 요구하는 일본어 능력을 다양화
-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기업 내 환경 정비 및 시스템 구축
- 외국인 전문인력의 커리어 형성 니즈에 적합한 커리어 플랜 수립
- 성공 사례 축적과 기업 내에서의 주지(周知)

KLI

참고문헌

- 법무성 입국관리국(2010), 『2010년판 출입국관리』.
- 법무성 입국관리국(2010), 『2009년도 유학생 등의 일본 기업 등의 취직상황에 대하여』, 홍보 자료.